

W/HAUS OF

ISSUE 7

21 Savage <american dream> Kid Cudi <INSANO> OG Keemo
<Fieber> Kali Uchis <ORQUÍDEAS> NIKOWOODYEAR <Project
Neon*> Westside Gunn, Conway The Machine, The Alchemist
<Hall & Nash 2> Boldy James & Nicholas Craven <Penitentiary
of Leadership> The Game & Big Hit <País de los Muertos>
<Dreams> Bruiser Wolf <My Story Got Stories>
<Twista <Kamikaze> 999 Heartake Sabile>
<Lord Forgive Me> kokyyuu <lily chou>
<chou> Eric Dolphy <Out Therè> George Clinton
<Clanton <Ooh Rap I Ya> Key-K>
<Rhettmatic <Kozmonautz>>
<Larry Saunders <Stranger>>
<Interview with G06 Beatz>



MATTERS

Haus of matters, worlds

FEBURARY

C

Recently Released

Westside Gunn, Conway The Machine, The Alchemist
Hall & Nash 2

The Game & Big Hit
Paisley Dreams

NIKOWOODYEAR
Project Neon*

Boldy James & Nicholas Craven
Penalty of Leadership

Bruiser Wolf
My Story Got Stories

공ZA, 45, 앞날

N

T

O

Full-Length Review

Kid Cudi
INSANO

21 Savage
american d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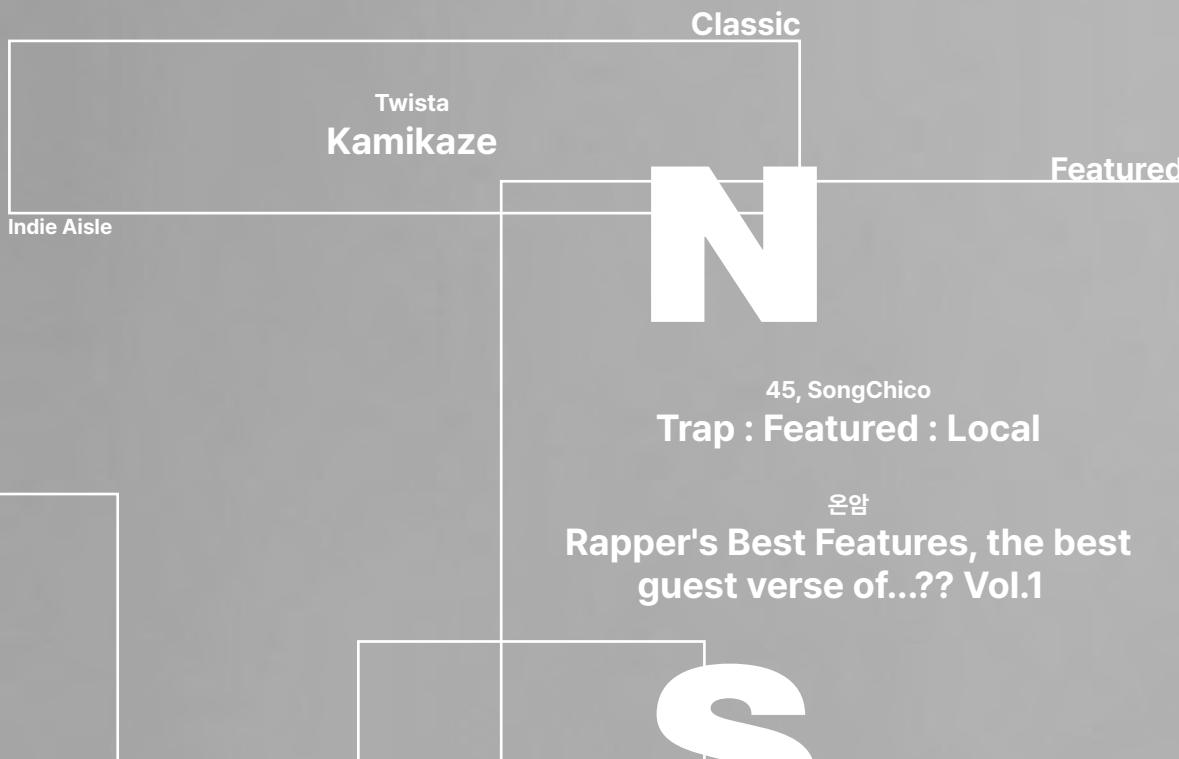
OG Keemo
Fieber

Kali Uchis
ORQUÍDEAS

공ZA, 45, SongChico, Indie Aisle

E

T



45
G06 Beatz

Editors' Picks

999 Heartake Sabiley
Lord Forgive Me

kokyuu
lily chou chou

Eric Dolphy
Out T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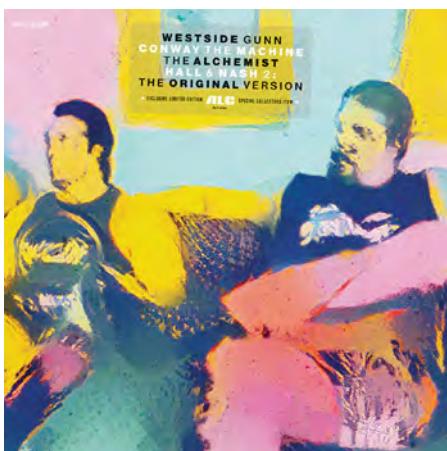
George Clanton
Ooh Rap I Ya

Key-Kool & Rhettmatic
Kozmonautz

Larry Saunders
Stranger

ISSUE 7

Westside Gunn, Conway The Machine, The Alchemist - <Hall & Nash 2>



TRACKS

1. Introduction / 2. Ray Mysterio / 3. Fork In The Pot (feat. ScHoolboy Q) / 4. Michaelangelo / 5. 94 Ghost Shit / 6. Pete VS Andre / 7. Fuck & Get High / 8. Judas / 9. Hall & Nash 2

2023.12.29

너무나도 배가 고팠던 힙합 씬 속 두 명의 레슬러 웨스트사이드 건(Westside Gunn, 이하 WSG)과 콘웨이 더 머신(Conway The Machine, 이하 CTM). 그리젤다 레코즈와 드럼리스가 지금처럼 주목받지 못했던 시절, WSG와 CTM은 스캇 홀과 캐빈 내쉬라는 프로레슬링 선수를 본인들에 비유한 <Hall & Nash> 믹스 테이프를 발매한다. 그 이후 프로듀서 더 알케미스트(The Alchemist)와 함께 후속작을 작업하지만, 두 래퍼가 세이디 레코드와 계약하면서 발매는 흐지부지된다. 시간이 흘러 잊혔던 <Hall & Nash 2>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는 <And Then You Pray For Me>로 한 차례 미끄러졌던 WSG의 커리어에 숨통을 트이게 만들어주었다. WSG와 CTM의 창작력과 퍼포먼스가 한창 달아오르던 시점인데다가, 드럼리스 장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더 알케미스트의 손길이 더해져 하나의 프로레슬링을 보는 듯한 유쾌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독특하면서도 중독적인 애드립, 마디 안에서 많지 않은 단어로 리듬을 생성하는 WSG와 야수가 목을 조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톤의 CTM의 조화는 왜 그들이 하나의 장르를 이끄는 아티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다. 더불어 보이스 샘플, 짧지만 강렬한 루프를 활용하는 더 알케미스트의 지휘는 자칫 휘발될 수 있던 경기를 챔피언십 매치로 뒤바꾼다.

by Editor 공ZA

RECENTLY RELEASED

The Game & Big Hit - <Paisley Dreams>



TRACKS

1. Backfade / 2. Paisley Dreams / 3. P Fiction / 4. Bang Freestyle / 5. Cutthroat (feat. TeeFLii) / 6. The Game Won't Stop / 7. Crisis / 8. Happy Ru Year / 9. Body for Body

2024.01.01

더 게임(The Game)과 빅 히트(Big Hit)이 만났다. 각각 40대 중반과 50대 초반을 바라보는 두 중년 래퍼이 합을 맞춘셈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빅 히트이라는 이름이 낯설 수 있다. 그는 히트보이(Hit Boy)의 아버지이다. 10년이 넘는 옥살이에서 출소한 뒤, 작년 2023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적지않은 나이의 신인 래퍼이다. 두 래퍼의 중후함을 부각시키고 싶어서일까, 이들은 뉴스클에서 한 발짝 멀어지며 갱스터 랩 대신 '마피오소 랩'을 앨범에 적극 녹여낸다. 90년대 동부 블-랩의 흥취를 베이스로 깔되 이들의 출신인 웨스트코스트의 향 또한 은은하게 풍긴다. 투박한 드럼비트 위에 지평크적 요소가 얹히며 그들만의 올드스쿨 힙합으로 청자들을 인도하는 느낌이다. 두 뮤지션이 돌아가며 랩을 뱉는 진행방식 또한 상호보완적인 요소로 다가오며 앨범의 풍미를 한 단계 높여준다. 하지만 더 게임과 빅 히트, 특히 빅 히트 파트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서사를 풀어내는 방식과 실력 차이를 꼽을 수 있다. 앨범의 분위기나 둘의 나이를 따져보면 어느 정도 서사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고 들을 수 있겠으나, 위 둘의 가사의 수준이나 메시지 전달력은 최근 블-랩 앨범들과 비교해 보면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빅 히트의 코러스를 제외한다면 그의 존재감은 다소 미미한 듯 보이며, 서로의 벌스를 주고받는 작품의 특성상 두 래퍼의 실력 차이가 더욱 두드러져 앨범의 몰입도를 깨지게 한다. 사실상 더 게임의 앨범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의 일방적인 영향력이 확연하게 보인다.

by Editor 45

NIKOWOODYEAR - <Project Neon*>



미국의 유명 트위치 스트리머인 Kai Cenat의 방송에 나와 많은 이들에게 얼굴을 비쳤던 니코우드이얼(NIKOWOODYEAR). 그 역시 트위치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주변인들과 함께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는다. 많은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니코우드이얼은 그 이상의 것들을 이 앨범을 통해 발현해냈다. 트렌드의 최전방에 있는 저지클럽, 플럭앤비, 레이지 등의 장르를 독특하게 섞어낸다. 사운드 또한 날카로운 신스와 굴곡된 사운드를 적극 활용하여 니코우드이얼만의 장르를 구축하려고 한 게 언뜻 보인다. 화려한 사운드 안에 어쿠스틱 사운드로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Energy Interlude .!", "pg. 22 .!" 또한 인상적이다. 클라우드 랩과 오토투션을 장착한 그의 랩은 앨범과 만날 때 강해진다. 하지만 그의 랩 스타일을 볼 때 트래비스 스캇(Travis Scott)과 같은 특정 래퍼가 생각나는 것은 쉽사리 지울 수 없으며, 이런 랩 스타일은 트랩씬에 과하게 포진한 레드오션을 넘어 이미 지나간 과거 형태의 랩 스타일로 밖에 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사운드도 혁신적이지 않다. 우리가 그동안 지겹게 들어온 최근 트렌드들을 잘 배합하여 하나로 만들어 냈으나 아직 이런 사운드를 가지고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다.'라고 보기 힘들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젊은 나이와 데뷔한지 얼마 안 된 그의 커리어만큼, 앨범 <Project Neon*>를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팔레트처럼 어딘가 많이 미숙하지만 여러 색을 조화롭게 섞은 것처럼 많은 가능성은 보았다.

TRACKS

1. TROOPS .! / 2. TRIAL & ERROR .! / 3. US .! / 4. PATIENCE .! (feat. Skreet2x) / 5. 30M .! / 6. ENERGY INTERLUDE .! / 7. NAVIGATION .! (feat. buffetboyjohn) / 8. TITANIC .! / 9. CANAL ST. INTERLUDE .! / 10. EARNED IT .! (feat. Herb4K) / 11. SEE YOU SOON INTERLUDE .! / 12. BASICS .! / 13. AREA CODES .! / 14. PG.22 .! / 15. NVRLND .!

2024.01.09

by Editor 45

RECENTLY RELEASED

Boldy James & Nicholas Craven - <Penalty of Leadership>



샘플 뜯어보고 싶은 비트를 자랑하는 프로듀서와 무심하게 톡톡 던지는 랩이 매력적인 래퍼의 합작은 청자 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니콜라스 크레이븐(Nicholas Craven) & 볼디 제임스(Boldy James)의 두 번째 프로젝트 앨범 <Penalty of Leadership>은 바로 그 매력을 충족하는 작품이다. 본작이 녹음된 시점은 볼디 제임스가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다. 따라서 앨범에는 자연스럽게 생사의 경계를 오가던 그의 사고 당시의 상황과 심정이 녹아있다. 기존의 그의 음악이 전형적인 갱스터 랩 스타일에 바탕을 두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추구해 온 갱스터 스토리의 전형에 새로운 바람이 들이닥치는 것은 필연적이다. 덕분에 뚝심 있게 고집하던 랩 가사도 한층 서정적인 분위기를 띤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니콜라스는 드럼리스 비트와 침명크 소울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장기를 톡톡히 보여준다. 게다가 앨범에 활용된 80년대의 R&B 샘플은 비트 사이의 흐름을 탄탄하게 잡아주니, 볼디의 랩을 뒷받침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족하다. 사실 볼디의 랩은 여타 드럼리스를 다루는 프로듀서들과 다량의 협업을 펼치며 고착화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볼디만큼이나 다량의 비트를 소화해 내는 사람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작품 역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니, 볼디에게는 또 하나의 탄탄한 디스크그래피를 일궈낸 셈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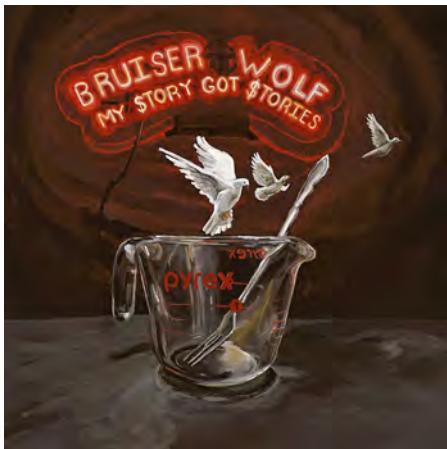
TRACKS

1. Formal Invite / 2. Jack Frost / 3. Evil Genius / 4. Murderous Tendencies / 5. No Pun Intended / 6. Brand New Chanel Kicks / 7. Straight As / 8. Soccer Mom / 9. Early Worms Get Birds / 10. Speedy Recovery / 11. All My Tokens

2024.01.12

by Editor 앞날

Bruiser Wolf -
<My Story Got Stories>



디트로이트 출신 래퍼 브루저 울프(Bruiser Wolf)는 그가 속한 환경 혹은 출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여태껏 들어본 적 없는 독특한 랩 스타일을 제시한다. 같은 디트로이트 출신 래퍼 Danny Brown만큼이나 괴상한 랩 스타일, 마치 랩이 아닌 스토리를 읊는 듯한 플로우가 대표적이다. 게다가 디트로이트 내의 마약이나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랩으로 풀어냄에도, 브루저 울프의 독특한 음색에 더불어 예상치 못한 편치라인의 나열은 갱스터 랩이라는 장르 특성의 궤를 달리하며 어느덧 그의 전매특허인 장기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번 정규 2집 <My Story Got Stories>는 역시 고유의 특이한 플로우를 자랑하는 작품이다. 재치 있는 농담들이 가득한 가사, 탄탄하게 자리 잡은 목소리로 무장한 우스꽝스러운 갱스터 랩은 드럼리스 비트 위에서 자유로이 활공한다. 살짝의 아쉬운 점이라면 전작을 답습하기에 기존에 보여준 작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미미한 발전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를 다르게 생각하자면 그의 스타일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지가 새로운 감상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게다가 아직까지는 브루저 울프 본인의 스타일이 씬에서 유효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이니 말이다.

TRACKS

1. Let The Young Boys Eat / 2. 2 Bad (feat. Danny Brown, Zelooperz) / 3. Waiting In The Lobby / 4. Dope Boy / 5. Holla At Ya Mans / 6. Looney Tunes / 7. Dope Ain't Good (feat. Stretch Money) / 8. I Was Taught To (feat. Trinidad James) / 9. G'z & Hustlaz (feat. Fat Ray) / 10. Crack Cocaine (feat. Chris Crack) / 11. Hurry Up & Buy / 12. My Story Got Stories / 13. Skywalkin' / 14. Before The Fall

2024.01.12

by Editor 앞날

RECENTLY RELEASED

INSANO

KID CUDI



TRACKS

01. OFTEN, I HAVE THESE DREAMZ
02. KEEP BOUNCIN'
03. GET OFF ME
04. MOST AINT DENNIS
05. WOW
06. ELECTROWAVEBABY
07. A TALE OF A KNIGHT
08. CUD LIFE
09. TOO DAMN HIGH
10. GETCHA GONE
11. AT THE PARTY
12. MR. COOLA
13. FRESHIE
14. TORTURED
15. X & CUD
16. SEVEN
17. FUNKY WIZARD SMOKE
18. RAGER BOYZ
19. PORSCHE TOPLESS
20. BLUE SKY
21. HIT THE STREETZ IN MY NIKES

2024.01.12

by Editor 공ZA

Kanye West의 악기, 랩 네임 Travis Scott의 유래, 달 위의 남자, 그리고 태극권.

장르 팬이라면 위 수식어에서 키드 커디(Kid Cudi)의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것이다. 그가 보여주었던 고점의 순간들 때문이라도, 사람들은 키드 커디의 새로운 작품이 나왔을 때 일말의 기대를 품게 된다. 최근 이를 가장 잘 보여주었던 건 키드 커디의 전작 <Entergalactic>. 넷플릭스 독점 애니메이션과 함께 공개된 이 사운드트랙은 그의 데뷔 앨범 수록곡 "Enter Galactic"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고,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특유의 사이키델릭한 감성이 듣보여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Man On The Moon> 시리즈와 더불어 2020년대의 거리를 순조롭게 이어가던 키드 커디는 자신의 새로운 챕터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 넘치는 멘트와 함께 신작 발매 및 월드 투어 예고를 한다. 2023년 여름을 뜨겁게 달굴 것이라는 그의 선언과는 달리, 2024년의 포문을 열며 '광인'이라는 뜻의 <INSANO>가 공개된다. X자 눈의 캐릭터로 유명한 멀티 팝 아티스트 KAWS가 제작한 여러 색과 모양이 무질서하게 배치된 앨범 아트워크처럼, 본인의 새 앨범에서 키드 커디는 다양한 참여 진과 함께 복합적인 음악 스타일을 선보인다.

랩과 싱잉이 모두 가능한 아티스트가 스물한 곡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작품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유기적인 흐름보다는 하나의 플레이리스트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데뷔작부터 함께 했던 Jean-Baptiste를 주축으로 Mike Zombie, Bnyx®, Dot da Genius, Take a Daytrip, Lil Yachty, Pharrell Williams 등 다양한 프로듀서가 제조한 트랩 기반의 팝 랩 사운드는 여러 아티스트와 어우러져 골라 먹는 재미를 선사한다. 또한, 최근 힘찬 씬에서 심심찮게 영향력을 선사하는 DJ Drama가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며 <INSANO>가 DJ Drama와 합작이 될 것이라는 루머의 흔적이 군데군데 엿보인다.

그러나 뷔페에 있는 모든 음식이 찾아오는 각각의 손님의 취향을 대변할 수 없는 것처럼, 키드 커디가 택한 방향성에서 하나둘씩 문제가 드러난다. 키드 커디의 독자적인 퍼포먼스로 이루어진 <INSANO>의 중반부는 완벽주의를 자처하며 앨범 발매를 미루었던 그의 빌언과는 대조되는 필러 트랙의 연속이다. 그뿐만 아니라 Pharrell Williams와 Travis Scott이라는 두 명의 슈퍼스타와 함께한 "At The Party" 또한 이름값에 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청취의 흐름을 한 템포 죽인다. 이러한 구성은 앨범 제작자로서 키드 커디가 훌륭한 역량을 지녔는지에 대한 의구심에 가지기에 충분하다. 그는 경기 중간 번뜩이는 침투 패스를 넣어주는 데에 능할지는 몰라도, 하나의 게임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맡기엔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키 패스 하나가 경기의 흐름을 바꾸듯, <INSANO>에서 빛나는 순간 역시 충분히 존재한다. 유로 댄스 그룹 Ace of Base의 "All That She Wants"를 샘플링한 "ELECTROWAVEBABY"는 팝스러운 비트 위에 커디의 허밍과 싱잉을 더해, 그가 자아내는 개성 넘치는 분위기를 확연히 보여주었다. 후렴 안에서 키를 바꾸어 경쾌한 분위기를 한 층 더 살리는 "PORSCHE TOPLESS"도 앨범이 마무리되기 전 뱅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다. 두 트랙 모두 트랩 아티스트들의 수많은 러브 콜을 받는 BNYX®가 프로듀싱에 참여하며 <INSANO>에서 더욱 많은 지분을 가져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한다.

최근 애증의 관계인 Kanye West와 다시금 극적인 화해를 하며 발매를 앞둔 Kanye West와 Ty Dolla \$ign의 합작 앨범의 수록곡 "Gun To My Head"에 참여하며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준 키드 커디. 하지만 한때 은퇴 암시를 했던 그이기에 <INSANO>가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다. 은퇴한 유명 선수들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본인들이 몸담았던 커뮤니티에 공헌하기 위해, 불우이웃을 돋는 기부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자선 경기에 참여하곤 한다.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늙은이들만의 잔치로, 혹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과연 키드 커디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그리고 <INSANO>는 광인의 마지막 불꽃일까? 아니면 새로운 챕터의 첫걸음일까?



21 Savage - <american dream>

by Editor 45

american dream

01 american dream

02 all of me

03 redrum

04 n.b.i.e.

05 sneaky

06 pop ur shit

07 letter to my brudda

08 dangerous

09 née-nah

10 see the real

11 prove it

12 should've wore a bonnet

13 just like me

14 red sky

15 dark days





최근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트래퍼가 누구냐는 질문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이 21 Savage를 언급할 것이다. 최근 Drake와 함께한 <Her Loss>, Metro Boomin 과의 앨범 <SAVAGE MODE II>는 힙합 팬들의 호평을 넘어 빌보드 차트에 여러 곡이 올라갈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는 상당했다. 이로써 21 Savage의 시대가 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승승장구하는 그였지만, 그의 솔로 앨범은 나온 지 6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으며 멤출 줄 모르는 그의 성장과 반비례하게 나오지 않는 솔로 앨범은 힙합 팬들을 애간장 태우기 충분했다.

21 Savage는 영국 출신 불법 이민자 출신으로 불과 22년도까지만 해도 영주권조차 없는 영국인이였다. 인트로인 "american dream"부터 어머니의 고심 끝에 21 Savage의 가족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 애틀랜타로 오는 결정을 하는데 기나긴 대서양의 크기만큼, 그의 인생도 기나긴 여정을 떠났다. 비록 수많은 고배를 마셨지만 그동안의 고통과 슬픔은 큰 성과로 맺어진다. "all of me"와 Murder를 애너그램한 "redrum"에서는 영국인 아이가 미국으로 넘어와 겪었던 어려운 사건들과 감정들을 나열한다. 자세한 묘사를 통해 집에선 바퀴벌레와 쥐가 들끓었고 집 앞의 거리에선 살인사건이 잦은 일을 가사에 담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앨범의 시작인 인트로와 초반을 넘어 중반부로 들어서면 21 Savage는 유아시절을 넘어 10대와 20대 시절을 떠올린다. 악육강식의 애틀랜타 후드에서 살아남기 위해 21 Savage 자신 또한 거리의 삶에 녹아들어가는 모습을 그려내는 순간이다. 자신이 그 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은 잔인한 일이었다. "letter to my brudda"와 "dangerous", "pop ur shit" 등 갠스터의 삶을 가사에 담아내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미 지나온 길임을 강조하며 거리의 삶과 거리를 두려는 이중적인 모습도 그려낸다. 하지만 애틀랜타의 큰 형님을 자처하며 서로 간의 학해와 화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상적이었으며, 동시에 YSL 레코즈의 법정 이야기를 수면 위로 이끌어 올리며 이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앨범의 후반부도 나름 괜찮았는데 "see the real" 이후 "prove it", "should've wore a bonnet", "Just like me"를 통한 3연타로 그동안 어두웠던 앨범의 분위기를 알앤비틱한 사랑 노래로 감싸며 바짝 긴장한 사운드를 부드럽게 풀어준다. 각각 Summer Walker, Brent Faiyaz, Burna Boy 등 21 Savage 혼자 만들기 힘든 분위기를 피쳐링진을 활용해 날카롭게 선 앨범의 분위기를 후반부 답게 부드럽게 풀어준 것도 인상적이었다.



<american dream>에서 주목할 점은 옛 소울곡과 팝을 샘플링을 통해 트랩 사운드로 탈바꿈한 부분일 것이다. 이를 통해 컨셔스한 분위기를 강하게 뽐게 되었으며, 지금의 21 Savage가 당시의 상상을 생생히 그려내는 듯한 그림을 만들어주기에 작품의 풍미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전작들에서 21 Savage가 하느 어두컴컴하고 공격적인 트랩과 반대되는 성향을 보여주고, 그동안 감정을 숨기던 그와 달리 새로운 맛으로 다가온다. 21 Savage 특유의 잠에서 깨듯한 멤블 랩 스타일은 가사와 스토리텔링이 위주인 <american dream>과 맞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올드팝 샘플링과 수준급 알앤비 싱어들의 도움을 발판 삼아 그가 혼자 내기 힘든 따뜻한 분위기로 이끄는 것도 인상 깊다.

자세히 묘사된 그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도 이 앨범의 흥미로운 요소지만, 사이사이 영화의 오마주와 칸예의 인터뷰 등 여러 속뜻을 숨겨놓은 말장난 역시 또 다른 재미로 다가온다. 앨범이 너무 심오해지고 지루해질 때 평소 21 Savage가 하던 트랩인 "pop ur shit", "nee-nah", "sneaky" 같은 곡으로 텐입하여 지루한 앨범이 너무 루즈할 때쯤 분위기를 상기시켜 주는 것도 괜찮았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중독적인 흑을 벨어내며 작품을 뜨겁게 하는 흑 또한 인상 깊었다. 다만, Lil Durk와 함께한 "dangerous"는 진부한 가사와 비트로 다가와 특별히 큰 매력을 느끼지 못 했다.

<american dream>이 신선하게 다가온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감성적인 21 Savage의 모습, 컨셔스한 트랩 앨범, 중독적인 흑으로 수작 그 이상의 작품을 뽑아 낸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결론적으로는 6년이란 시간을 기다린 보람이 있는 괜찮은 앨범이었으며, 그동안 여러 힙합 앨범으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21 세비지는 조력자가 없어도 혼자 잘할 수 있는 래퍼라는 게 증명된 앨범이었다. 이 앨범을 통해 21 Savage는 다시금 트랩의 레전드 반열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트랩의 역사에서 굵직한 이름이 될 래퍼를 말해주고 있다.





현재 독일의 힙합 씬은 대부분의 장르 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일대 미지의 영역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아티스트는 7분짜리 디스곡을 공개해 “독일 랩의 희망”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래퍼는 갱단과 연루되어 재판을 받기도 하고, 어떤 프로듀서 두오는 팝스러운 랩송을 주무기로 차트를 휩쓸고 다니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은 민망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느 힙합 씬과 다를 것 없는 모습이다.

그리고 OG Keemo는 그런 독일의 힙합 씬에서 가장 탄탄하고 꾸준한 디스코 그래피를 가지고 있는 래퍼였다. 전작 <Geist>와 <Mann beisst Hund>를 통해서 그는 뛰어난 스토리텔링으로 독일 힙합 어워드 선정 ‘최고의 작사가 상’을 받은 바 있었다. 그런데 최근의 그는, 갑작스레 청각적 쾌감에 집중하겠다며 Banger에 몰두한 믹스테이프 하나를 들고 돌아오는 행보를 보였다. 2024년 독일 힙합 씬의 포문을 여는 <Fieber>는 그렇게 발매된 음반이다.

OG Keemo - <Fieber>

by Editor SongChico

TRACKLISTS

- 01 Konsil (Intro)
- 02 Tasche
- 03 Fiesling
- 04 OKAY!
- 05 PIMPSPORT Interlude
- 06 Feber drøm (Skit)
- 07 Tórshavn
- 08 Bee Gees (feat. Levin Liam)
- 09 99 Grad
- 10 Fieber
- 11 Galgen
- 12 Guten Tag (Fv Remix)
- 13 Tiefschlaf (CGOON)
- 14 Aus dem Schneider - Freestyle
- 15 Pimpssport
- 16 Boiler
- 17 Feber drøm 2 (Skit)
- 18 Süden
- 19 3 Ringe (Outro)

초반부터 소울/재즈 샘플을 이용한 트랩 사운드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다른 트랙들과의 차이를 둔 "Fieshing"과 "Torshavan" 두 개의 트랙이 완급조절을 해내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후 등장하는 "Bee Gees"가 본작 내 최고의 순간을 보여준다. 이 트랙을 포함한 본작의 전체적인 프로덕션은 OG Keemo의 오랜 파트너 Funkvater가 맡았으니 의심의 여지없이 OG Keemo의 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운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과는 다른 작사법으로 앨범을 채워냈지만, 무의미한 가사의 나열보다 트랙 간 분리에 가까운 리릭시즘이 인상적이다. 거칠고 어두웠던 과거를 가진 OG Keemo는 '굶주렸으니 돈을 벌어'나 '어디든 다 꺼어, 종인보호 프로그램만 빼고' 같은 라인들을 통해 돈과 삶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털어놓는다. 농구와 관련된 워드 플레이들 또한 눈에 띈다. '부저가 울리니 난 다시 나가서 이겨', '난 아데토 쿤보의 엄마보다 더 많은 거울을 만들어' 같은 가사들은 마약 사업으로 인해 NBA 스카웃을 거절한 Keemo의 농구에 관한 관심을 생각해보면 납득가는 데가 있기도 하다.

물론 본작은 비슷한 듯 다른 종류의 가사들로 이루어졌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내고 관통하는 주제가 OG Keemo의 태도와 변화이다. 뛰어난 작가처럼 보이던 래퍼는 '이 짓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젠 겸손한 것도 지쳐', '취미로 하던 때의 기분이 그리워', '음악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겠어'라는 문장들을 꺼내며 이제부터 예술가 행세를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던 음악을 하던 때로 돌아갈 것을 선언했다. 그런 면에서 <Fieber>는 이센스의 <저금통>이나 Kendrick Lamar의 <Mr. Morale & The Big Steppers>를 연상케 하는 부분도 있다. 특유의 작사법으로 명성을 떨쳤던 래퍼가 랩과 사운드에 집중한 작품이고 남들에게 사랑받는 본래 캐릭터에 지쳐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걷기로 마음먹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Keemo의 새 출발은 이들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 변화가 팬들 사이에서 강한 호불호를 얻고 있지만, 발매 직후 앨범차트 1위를 달성하며 자신이 최고의 독일 래퍼 중 한 명임을 과시한 Keemo의 선택은 적어도 본인에게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었다. 앨범의 표제처럼 자신을 하얗게 불태운 Keemo가 당분간 휴식기를 가진다고 밝힌 것도 그와 관련있을 것이다.

혹자는 OG Keemo가 "이제는 다른 래퍼들과 차이점이 없는 래퍼"가 됐다며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는 다른 래퍼들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었고, 본작을 통해 여전히 독일 최고의 래퍼 중 한명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Kali Uchis - < ORQUÍDEAS >

by Editor Indie Aisle

“창밖으로는 서울의 거대한 도시가 흐르고 있었는데, 칼리의 목소리는 왜인지 도시에 꽉 잘 어울린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 리뷰는 그 때 들은 <Orquídeas>에 관한 것이다.”

그 어떤 장르의 단면에도 독특한 구획은 있기 마련이다. 2000년대의 끈적한 컨템퍼러리 알앤비가 얼터너티브 알앤비의 아성에 잡아먹힌 이후로부터, 알앤비는 더 이상 관능적이고 농밀한 이야기 따위를 지껄이는 장르가 아니었다. 그 보다는 활泼하고 내면적인 이야기가 유행하는 장에 가까웠다. 사랑의 감정과 경험을 시청각화하거나(Frank Ocean), 퇴폐적 사랑을 침통해하거나(The Weeknd), 부패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거나(Miguel, Syd), 자신의 철학을 수놓거나(Moses Sumney, Steve Lacy), 적어도 따뜻한 로맨티시즘(Daniel Caesar, Christian Kuria)을 발산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콜롬비아계 출신 칼리 우치스(Kali Uchis)가 불쑥 가져온 라틴 알앤비야말로 이런 독특함의 끝을 달린다. 음악적 방향은 얼터너티브 알앤비에 군데군데 라틴이 섞여있는데, 하고자 하는 말 자체는 컨템퍼러리 알앤비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어는 한국인으로서 번역조차 난감한 스페인어다. 한국에서 앨범을 청취하는 내국인의 입장에서 이 앨범에 접근하는 것은 하나의 원대한 미스터리로 진입하는 것에 가까웠다. 하지만 <Orquídeas>는 미스터리를 던지는 작품보다는 청자의 입장과 인상을 수용하는 앨범이었고, 곡들의 톤앤매너는 주먹을 뻗어 사색을 요구하기보단 상대를 유혹시키는 관능적 자태를 자아내는 류의 것이었다. 따라서 가사 번역 따위는 관두고, 카페에 가만히 앉아 오후의 일광을 맞으며 앨범을 청취해도 문제될만 한 것은 전혀 없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거대한 도시가 흐르고 있었는데, 칼리의 목소리는 왜인지 도시에 꽉 잘 어울린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 리뷰는 그 때 들은 <Orquídeas>에 관한 것이다.

<Orquídeas>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앨범의 무게가 굉장히 가볍다는 점이다. 단순히 이지리스닝의 간편한 사운드로 이루어진 것을 넘어, 앨범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프로덕션의 목적성과 해상력 자체가 상당히 라이트하다. 많은 힙합/알앤비 리스너들이 우려를 표했던 라틴의 수용도도 상당히 적절한 수준이라 거부감도 적다. 흡사 라틴을 베이스로 결들인 얼터너티브 알앤비가 아니라, 얼터너티브 알앤비로 보내는 라틴 혈통에로의 현정곡 같은 사운드다. 물론 그보다는 라틴 음악이 다소 뻔한 신스 베이스에 포인트를 주는 역할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달콤한 체리 아이스크림에 군데군데 박힌 체리 조각처럼—산발적이고, 자주 등장하되, 전반적인 얼터너티브 알앤비의 톤을 해치지 않는 라틴은 신스 웨이브 알앤비가 가지는 정형성을 크게 탈피해냈다. 이 시점에서부터 신스 웨이브는 라틴 음악이 가지는 특유의 토속적 거부감을 중화시키며, 라틴 음악은 보편화 된 신스의 평범한 사운드에 포인트로 작용하니,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탁월한 프로덕션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집합이 섞여, 하나의 희한하고 기묘한 '미학'의 교집합이 탄생한 것이다.

TRACKLISTS

- 01 ¿Cómo Así?
- 02 Me Pongo Loca
- 03 Igual Que Un Ángel
- 04 Pensamientos Intrusivos
- 05 Diosa
- 06 Te Mata
- 07 Perdiste
- 08 Young, Rich & In Love
- 09 Tu Corazón Es Mío
- 10 Muñekita
- 11 Labios Mordidos
- 12 No Hay Ley Parte 2
- 13 Heladito
- 14 Dame Beso / Muévete

그만큼 앨범의 사운드는 탁 트인 공간감을 선사하는, 신스 베이스와 라틴의 절묘한 배합으로 이루어져있다. 칼리의 청아한 목소리에 깔린 에코와 디스토션 모두가 도회적이고 세련된 공간감을 유발하며 앨범의 톤을 착실히 잡아간다. 딱히 기술적으로 특출난 것은 없다. 하지만 The Weeknd와 Dua Lipa가 물을 잔뜩 올려놓은, 주류가 된, 조금은 뻔한 신스 베이스를 활용해 만들어내는 음계의 설정이 참을 수 없이 아름다운 종류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나마의 혁신성이라곤 라틴의 유려한 반음계 설정을 얼터너티브 알앤비의 장에 조금 풀어놓은 정도인, 이 앨범을 좋은 앨범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도 그러한 멜로디 전개에 있을 것이다. 단순히 목소리의 특색적 재능을 넘어— 선율 분포의 균원적 재능을 맘껏 뽐내는 칼리의 목소리는 청자의 무드를 완연한 슬로잼으로 바꿔버린다. 그 선율에서는 러브젤이 흐르고, 교태로운 유혹이 흐르며, 사랑에 취해 몽환적으로 빼꼼거리는 젊은이들의 여행이 흐른다. 그런 것들을 금새 시각화시키는 것이 칼리의 선율적 재능이고, 목소리적 재능이며, 젊은 인간의 특권이 아닐까.

작품 전반부의 트랙들은 신스 베이스 사운드에 지나치게 침전된 채 흐르는지라 같은 곡인지 다른 곡인지分辨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곡들 각각의 특색이 적은 대신 탁월하게 아름답고— 핵심적으로 가볍다. "Perdiste"의 관능적이고 육감적인 보컬, "Igual Que Un Ángel"의 신스 팝 글리터 폭탄 등 예외적 상황을 배제하더라도 앨범의 약점으로 볼만 한 것이 적은 까닭이 될 것이다. 아니, 오히려 이는 탄탄한 유기성의 방증으로 보일 여지도 존재한다. 숫 플랫폼 유행의 트렌드를 쫓는 2~3분 가량의 상업성 짙은 곡들의 나열에도, 앨범의 톤앤매너가 전반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은 난잡한 유기성이 범람하는 현 세태에 희귀한 강점이니 말이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앨범의 커다란 단점, 예컨대 큼지막한 체리 조각을 하는 레게톤 포인트가 처음으로 유기성을 깬다는 사실은 결국 이 앨범이 누굴 위한 현정시인질 명료하게 시사한다. "Te Mata"로 갑작스레 선회하는 앨범의 정중앙은 칼리가 자신의 협통적 고향에 바치는 레퍼런스이자 라티노로서의 정체성 선언이다. 유기성도, 신스웨이브 알앤비와 라틴의 중층성도 성취한 칼리였지만— 근원적으로 이 앨범은 중남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Tyler, the Creator와 작업하며 미국인다운 자신을 보여줬고, 알앤비를 완연히 수용하며 미국인으로서의 인상을 자아냈던 그녀였지만— 칼리는 이제 라티노로서의 그녀 또한 드러내고자 한다. 셀러브리티와 개인적 자아 사이 간극에서 간드러지게 솔로 잠을 완수하는, 그녀의 모습이 아슬한 까닭이다.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고, 부분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다. 라티노로서의 그녀가 엄폐하는, 이 레게톤 사운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앨범에 관한 호오를 운위하는데 핵심적인 척도가 될 것이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단점은 포착된다. 라틴 팝을 배척하는 청자라면 "Te Mata"를 필두로 한 "Dame Beso // Muévete" 등의 완연한 레게톤과 중반부 유기성의 몰락이 불호점으로, 라틴 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청자라면 다소 일관적으로 흐르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톤이 불호점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그러니 앨범의 좋은 점을 모두 얻어내기 위해서는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작품을 즐기는 태도가 중요할 것이다. 라틴 팝을 순대는 일이 두렵다면, 앨범의 전반에 짙게 깔린 얼터너티브 알앤비의 청아함을 믿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흘러가듯 앨범을 듣다보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농밀한 영혼의 힘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영혼들은 표제 '난초(Orquídeas)'처럼, 순수하고 고혹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앨범을 들으며 그 순수와 고혹을 느낄 때야말로, 우리가 칼리 우치스란 아티스트를 보다 관능적인 신화처럼 우러러 볼 수 있는 순간일 것이다. 때때로 그녀의 음악에서, 세인은 거부할 수 없는 감각적 경험을 하게 된다.

Twista - <Kamikaze>

by Editor Indie Aisle

TRACKLISTS

- 01 Get Me
- 02 Kill Us All
- 03 Pimp On (feat. 8 Ball, Too Short)
- 04 Slow Jamz (feat. Kanye West, Jamie Foxx)
- 05 Overnight Celebrity
- 06 Still Feels so Good (feat. Jazze Pha)
- 07 Drinks
- 08 Badunkadunk
- 09 One Last Time
- 10 So Sexy (feat. R. Kelly)
- 11 Higher (feat. Ludacris)
- 12 Snoopin'
- 13 Like a 24 (feat. T.I., Liffy Stokes)
- 14 Hope (feat. CeeLo)
- 15 Sunshine (feat. Anthony Hamilton)
- 16 Art & Life (Chi-Roc) (feat. Memphis Bleek, Young Chris, Freeway)
- 17 So Sexy Chapter II (Like This) (feat. R. Kelly)
- 18 Freak-A-Leek Remix (feat. Twista, Jermaine Dupri)

2020년대에 속사포 래퍼 트위스타(Twista)를 힙합사에서 유의미한 인물로 인식하는 청자는 거의 드물다. 장르 전체에 거대한 수사로 작용하는 앨범을 내지도 못했고, 어마어마한 수준의 랩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개성이나 매력을 보여주지도 못한 까닭이다. 물론 그렇대도 <Kamikaze>는 트위스타의 앨범이다. 2000년대에 차퍼 기믹마저 Eminem에게 빼긴 트위스타의, 진정코 유일한 행운이야말로 2004년에 Kanye를 만난 일이었을 것이다. 그 래핑이 평탄할지라도 침명크의 영웅이 그 랩의 밋밋함을 근사하게 바꿔놓을 수 있었고, 혹이 올드할지라도 프로덕션의 화신이 그 올드함을 클래식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Kanye야말로 2000년대의 치트키적인 존재가 아니었나 싶다. 2001년의 Kanye는 <The Blueprint>의 전설적 랩송들을 제조했고, 2004년에는 <Kamikaze>와 <The College Dropout>을 연달아 냈으며— 2005년에는 <Be>를 제조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Kamikaze>는 엄밀히 말하자면 '트위스타'의 업적보다는 Kanye의 업적에 가까운 '명반'일 것이다. 트위스타에 대해 쓴다면서 Kanye에 관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말았지만, 그런 사실들을 마땅히 부정하기도 힘든 것이다.

물론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트위스타가 대중적인 선에서 꽤나 개성있는 래퍼로서 꼽혔던 것도 사실이다. 단적으로 빌보드 1위를 거머쥔 "Slow Jamz"나 6위의 "Overnight Celebrity"의 경우, 곡의 성공엔 Kanye의 송라이팅과 Jamie Foxx의 피처링만큼이나 트위스타의 차퍼 스타일 래핑 또한 혁혁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0년대의 에미넴처럼, 트위스타의 래핑엔 대중들에게 근원적인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다. 음악을 듣는 이로 하여금 '내가 이 곡을 완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은 비교적 흥행에 유리했고, 그 덕에 <Kamikaze>는 흥행했다. 물론 언급했듯 Kanye의 지대한 지지기반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 또한 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는 곧 나을 자신의 데뷔작에 쓰일, 선형적 사운드 소스들을 죄다 타 아티스트의 앨범에 쏟아부을 만한 몇 안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Just Blaze와 쌍두마차를 이루며 시대를 풍미하던, 침명크 소울의 대부분 <Kamikaze>에 자신의 혼을 담은 또 하나의 자양분을 뿌리내렸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시대의 간교스런 거름망에서 서서히 사라질 운명이었던 또 한 명의 래퍼가 '명반'이라고 할만한 것을 남기게 되었다.



Twista - <Kamikaze>



앨범의 침명크 프로덕션은 —그 압도적인 프로듀서 덕택에— 존재 자체로 들을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곡을 듣다보면 <Kamikaze>만의 개성 또한 찾아볼 수 있다. <The Blueprint>에서 짜인— 가히 경이로울 수준의 활동성과 신축성은 없지만 다분히 '트위스타적'인 전반적 프로덕션이 그러하다. 차력 랩의 매력을 더하듯 과하게 속도가 높아진 소울 샘플러와, 반복해 따라할만 한 차밍 구획은 트위스타의 스타일을 보완하고, 대중적으로 만들며 침명크와의 자연스런 조응을 유도한다. 이전의 칸예가 만들어냈던, 역사의 한 축으로 기록될만 한 침명크 보다 질이 떨어질지언정 <Kamikaze>의 프로덕션이 훌륭하다 부를만 한 까닭이다. 한데 트위스타의 래핑에 관해 말하자면 '영반'에 관한 언사들이 막히며 펜 촉이 갑작스레 방황한다. 앨범에 내포된 일대 고급스러움과 훌륭함 같은 핵심적 영역들이, 사실 상 전부 —라고 해도 무방할만큼— Kanye의 프로덕션에 의지하고 있는 탓이다. 물론 트위스타도 히트 트랙의 성공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다. 하지만 Kanye는 2000년대 힙합의 신화적인 영웅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손이 닿는 트랙들마다 대부분이 애수를 띠거나 근사해졌기에, 트위스타의 랩이 아무리 좋은 라임과 플로우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구두점으로, 작품의 주인공보다 프로듀서의 실력과 스타성이 훨씬 돋보이는— 괴상한 명반이 탄생했다. <Kamikaze>에서는 트위스타 대신 Kanye가, 힙합의 초연을 너른 침명크 위에 재현한다.

그리고 그 재현된 첫번째 초연이 감탄스런, 옛 밤 시대의 회귀다. 그리고 조금의 차퍼 스타일 비트. Kanye는 1990년대의 휘황한 시절, Busta Rhymes와 Tech N9ne 등이 발매한 초기 명반들의 차퍼 짜법을 따르면서도 침명크 소스를 유려하게 뿌려냈다. 그러고보면 트위스타의 랩 실력도 Tech N9ne의 기발하고 듣기 좋은 플로우와 많이 닮아있다. 일명 '속사포 랩'이라 불리는, 차퍼 래퍼로서 스타일의 태동기와 절정기를 함께한 N9ne의 플로우야말로 트위스타 본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소였을 것이다. 이를 유려하게 풀어내는 곡들이 'Still Feels so Good'이고, 'Badunkadunk'이며, 'Snoopin'이다. Kanye와 트위스타는 앨범에서 서로의 장기를 주거니받거니하며 확연한 차이가 있는 재능의 균형을 매꾸어나갔다. 때때로 어설플거나 모난 래핑의 구멍이 발생하더라도, <Kamikaze>가 그 특유의 유기성과 균형감을 놓치지 않는 이유 또한 이런 데에 있을 것이다. 트위스타의 랩은 평범하거나 간헐적으로 훌륭했지만, 우리의 윤택한 프로듀서는 언제나 그 들쑥날쑥한 방점의 균형을 자로 잰 듯 회복시킬 줄 아는 인물이었다.

결국 트위스타보다는 Kanye가 집중된 전반적 완성도에서 <Kamikaze>는 놀라우리만치 비변증법적인 명반이 되고 말았다. 트위스타와 Kanye가 뮤직비디오를 이룬 랩 그룹을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MC와 DJ의 간극은 단순히 음악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차이의 균형으로 벌어졌을 것이다. 물론 트위스타의 철 지난 랩 스타일과 청진할 것 없는 플로우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엔 어쩔 수 없는 '근원적' 재량의 차이가 있었다. 뒤집혀버린 앨범의 주인공, 재능의 찬사가 프로듀서에게만 간다는 사실은 트위스타의 모자름 보다는 Kanye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매개다. 그리고 특별할 것 없는, 몰개성의 랩송들이 가히 '영곡'들로써 칭송받고 있다는 점이 자각되면 Kanye라는 존재가 그리는 압도적 위엄이 공고해진다. 어쩌면 <Kamikaze>는 애초부터 Kanye의 앨범이었는지도 모르겠다.



DETROIT

45

SongChico

TRAP : FEATURED : LOCAL

TRAP : FEATURED : LOCAL

45

SongChico



MEMPHIS

 bank

최근 들어 Drake의 Knife Talk와 Key Glock, Big 30, Pooh Shiesty, Young Dolph, Big scarr, Moneybagg Yo까지 이들이 선보인 멤피스 트랩의 가치는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다. 애틀랜타 트랩으로 불리우는 기준의 시류에 대항하는 차세대 사운드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음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되었다. 멤피스 힙합은 808 베이스를 최초로 힙합에 차용할 만큼 트랩의 시초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나름 근본 있는 장르와 지역 중 하나다.

멤피스는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동네로 블루스의 고장으로도 알려진 도시이다. 지리적 특성상 명확하게 동부와 서부로 나누기 어렵기 때문일까, 멤피스의 힙합 역사는 타지역이랑 비교하면 독특한 방향으로 발전했다. 두 지역의 특색을 고루 흡수하며 독자적으로 성장한 모습이다. 서부의 지평크적 요소와 동부의 리릭시즘이 지니는 매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평크적 요소는 또 다른 남부 지역 휴스턴의 칵드 앤 스크류와 섞이고, 이 둘의 특성이 어우러진 독특한 사운드가 멤피스 힙합 뼈대가 된다. 멤피스의 올드스쿨 힙합에도 여러 주요 아티스트들이 있지만, 현재 멤피스 트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뿐만 아니라 평가 받는 아티스트는 Three 6 Mafia를 뽑을 수 있다. Three 6 Mafia의 멤버 중 후대에 큰 영향력을 끼친 래퍼를 뽑자면 Juicy J, DJ Paul, Project Pat을 뽑을 수 있는데 각각 Three 6 Mafia의 앨범 <Mystic Stylez>와 Project Pat의 앨범 <Mista Don't Play>이 멤피스 트랩의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앨범으로 뽑고 있다.



Three 6 Mafia -
<Mystic Stylez>



Project Pat -
<Mista Don't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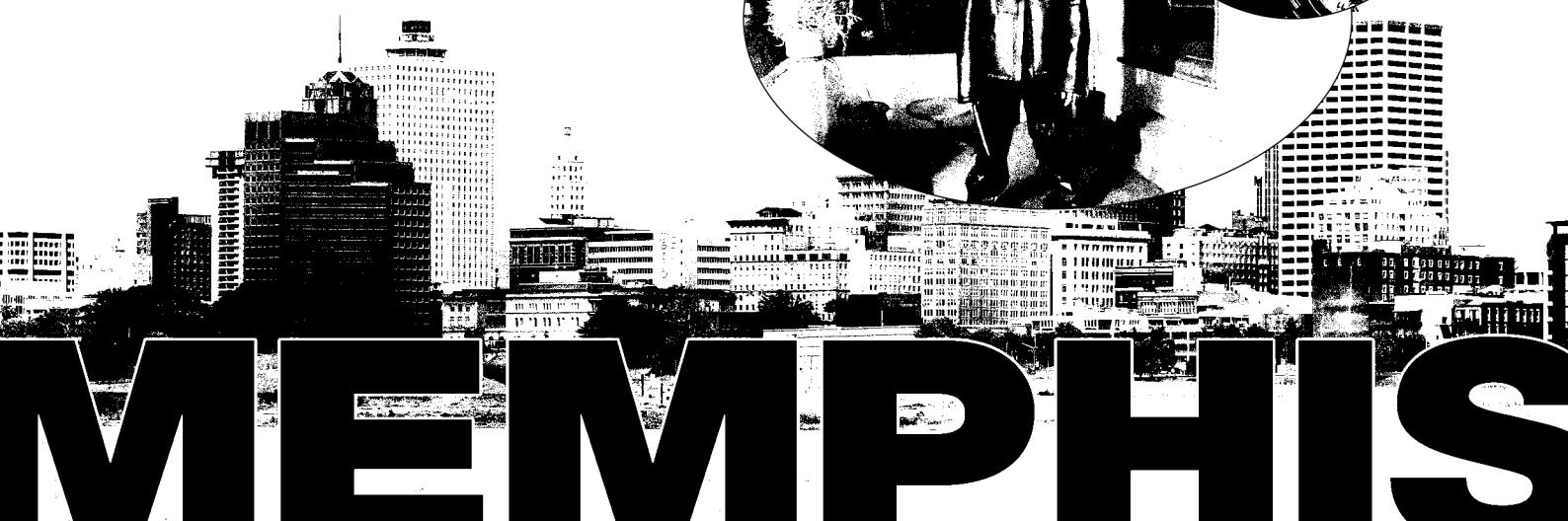
본격적인 멤피스 트랩의 시작은 Drumma Boy와 Yo Gotti로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2000년대 후반 급부상한 애틀랜타 트랩은 차용하되, 자신의 뿌리자고 향이기도 한 멤피스의 향을 첨가하고자 했다. 스릴러 영화를 사용한 샘플, 음산한 분위기의 건반과 느린 BPM, 베이스와 하이햇을 제외하면 텅텅 빈 비트 구성 등 이 모든 것이 위에서 언급한 90년대 멤피스 힙합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었다. 또 Yo gotti는 2012년 멤피스에 자신의 레이블 Collective Music Group을 설립하는데 Moneybagg Yo, Block Boy JB, GloRilla 등 멤피스 출신의 트랩퍼들 양성하며 Young Dolph에 대적할 만한 하나의 큰 그룹을 만들었다.

Yo Gotti가 멤피스 트랩의 시작을 알렸다면, 비프 관계에 놓여있는 반대편 Young Dolph는 멤피스 트랩의 정신을 자신의 음악에 담았다. Young Dolph는 Yo Gotti에 향한 디스로 지역 내 두 사단의 싸움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비프를 양분 삼아 자신의 곡에 시카고 드릴 못지않게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가사를 담아냈다. 또 Key Glock과 Young Dolph는 애틀랜타 트랩의 아이덴티티라 할 수 있는 멜로디컬함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 대신 음산한 분위기의 건반 사운드와 하이햇, 808 베이스 소리를 첨가함으로써 음산한 분위기를 극도로 부각하였다. 이러한 사운드를 선보였던 Young Dolph는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그가 남긴 멤피스 트랩의 정신은 후배들이 가꾸고 키워내며 미국 내 가장 주류가 되는 트랩 사운드로 만들어냈다.

이후 Drake의 Knife Talk, Pooh Shiesty, Key Glock로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 멤피스 트랩은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차세대 장르이다.



Drake의 Knife Talk 뮤직비디오 中





디트로이트는 Eminem, Big Sean, Danny Brown의 고향이라는 사실과 J Dilla가 유산으로 남긴, 특유의 샘플링과 드럼 머신을 이용한 프로듀싱이 힙합씬에 남긴 가장 임팩트 있는 무언가로 남아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트랩 장르가 인기를 얻고 연구가 활발해지는 201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디트로이트 역시 자신들 만의 트랩 장르를 가지게 된다.

이 시기 Doughboyz Cash(DBCH)와 Helluva를 중심으로 신스, 건반을 이용한 멜로디와 빠른 BPM의 드럼라인을 가지고 있는 트랩 음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호러코어의 대표적 지역인 미시간의 영향으로 음산한 분위기의 루프가 없어지기도 했다. 이들의 음악이 힙합씬 전역에 전해지기엔 역부족이었지만, 디트로이트 씬에 자리 잡아 후에 등장할 래퍼들에게 영감을 주게 된다.

디트로이트 트랩 씬의 래퍼들은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기보다는, 메인스트림에서 행해지는 트랩 사운드와 그들이 자라며 접했던 음악들을 섞어내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 결과, 디트로이트 트랩 씬은 시카고의 드릴보다는 더 명확한 발음을 가지고, 애틀랜타 씬의 트랩 음악에 비해서는 멜로디의 비중이 낮은, 독특한 스타일의 트랩 사운드를 가지게 되었다.

현시점의 디트로이트 트랩은 대부분 빠른 BPM의 드럼패턴과 건반, 건반타악기 를 이용한 멜로디 라인이 등장하는 갱스터 랩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사운드를 갖추고 나서는 독특한 컨셉을 지닌 가사 또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암호화폐, 다크 웹, 신용카드, 문서위조와 같은 사기행각을 내용으로써 다루는 스캠 랩(Scam Rap)이다. 스캠 랩은 디트로이트 씬의 래퍼 Teejayx6 의 손에서 새 생명을 얻으며 이 지역 만의 독특한 모습이 되었다. (Teejayx6는 실제로 사기행위로 체포된 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거나, Lil Baby의 운전면허증을 훔쳐 그의 크루들에게 쫓겨 다니기도 했다.) 갱스터 기믹을 내세우고 그에 걸맞는 폭력적인 음악을 선보이는 많은 래퍼들이 있었지만, 디트로이트는 그러한 갱스터 랩을 시대에 맞게 한단계 더 진화시켰다.

애틀랜타 출신의 Lil Yachty는 2021년, 이 지역의 음악에 매료되어 <Michigan Boy Boat>를 발매했고, 해당 앨범을 통해 Tee Grizzley, Veeze, Sada Baby, Icewear Vezzo 등 디트로이트에서 잔뼈 굵은 래퍼들을 여럿 데려오며 메인스트림에 이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Lil Baby의 푸쉬를 한껏 받은 42 Dugg도 디트로이트를 배경으로 활동하던 래피이고, 2022년 XXL Freshman Class에 선정된 Babytron 역시 디트로이트 씬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는 트리오 ShittyBoyz의 멤버이다. 이렇듯 디트로이트는 알게 모르게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며, 낯설지만 익숙한 자신들만의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RAPPER'S BEST FEATURES, THE BEST GUEST VERS OF...??

최고의 피쳐링 벌스들...vol.1

by Editor 은암

현대 대중음악의 백미를 꼽으라면 꽤 여러가지 요소들이 사람들의 입 방아에 오르내리지만, 결코 음악 속 피쳐링 아티스트의 존재만큼 직관적이고, 타산적이며, 흥미로운 방점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같은 훗과 브릿지, 비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위에 어떤 게스트가 어떤 방식의 벌스를 뱉느냐에 따라 청자의 감상과 관심은 순박한 뒤집듯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한때 청자의 흥미와 탄성을 자아냈던 마흔 명의 게스트들이 있다. 이들이 타 아티스트의 작품에 부여한 영예와 인장들을 찾아내고 재단하는 작업이 그들 커리어를 탐구하고 사랑하는 데에 핵심적인 지표가 될지도 모른다. w/HOM의 'Rapper's Best Features, the best guest of...??' 섹션이 그들의 유산을 직접 찾아 집결시켜 보았다. 힙합 씬에 혁혁한 공을 세운, 마흔 명의 래퍼와 그들의 역사적 벌스가 2월과 3월, 두 파트로 나누어 KHL 피처에 수록된다.

A\$AP ROCKY

AMINE

ANDRE 3000

BIG DADDY KANE

BIG K.R.I.T

BLACK THOUGHT

BUSTA RHymes

COMMON

DANNY BROWN

VOL.1

DENZEL CURRY

DRINKE

EAT SWEAT SHIRT

EMINEM

FREDDIE GIBBS

INSPECTAH DECK

J COLE

JID

JAY-Z

DEJ RADA\$\$

THE WEST



ScHoolboy Q

"Hands on the Wheel"

Kid Cudi의 "Pursuit Of Happiness" 커버곡을 샘플링한 "Hands on the Wheel"의 비트는 처음부터 ScHoolboy Q보단 클라우드 랩 에라의 A\$AP Rocky에게 제격이었다. 일렉트릭 기타의 선율이 작열하는 비트 위 Rocky는 유래 없이 빠르게 음절을 내뱉으며 비트에 완벽히 녹아들었다.

The best guest verse of...
A\$AP Rocky

The best guest verse of...
Amine

Rick Ross

"Sixteen"

André 3000의 피쳐링 벌스를 하나씩 모아 앨범을 제작해도 명반이란 평가를 들을 것이다. 신선의 경지에 오른 인간의 랩이란 그 정도인 것이다. 그의 모든 피쳐링 벌스가 하나 같이 주옥 같지만, 그 중 "Sixteen"의 벌스는 기술적으로 가장 경이로운 것 이었다. 2분 간 쉬지 않고 복합적인 라임 패턴을 나열한 그의 활약은 가히 역사적이었다.

The best guest verse of...
Andre 3000

The best guest verse of...
Big Daddy Kane

Big L

"Platinum Plus"

Big Daddy Kane은 90년대 이후에도 몇 되지 않게 전성기의 기량을 유지한 원로 래퍼이다. 견고한 중저음의 목소리와 시대를 앞서간 라이밍 실력은 현역들에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아, Big L의 "Platinum Plus"에서 그 빛을 발했다. DJ Premier의 비트 위에서 다음절 라임을 능숙히 운용하는 그의 플로우는 흠 잡을 데가 없었다.



A\$AP Rocky

"1 Train"

"1Train"은 현대 힙합 단체곡의 바이블과도 같은 곡이다. 이전 씬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물이 된 루키들이 Hit-Boy의 불懈 비트 위에서 각자만의 랩 스타일을 뽐낸 역사적인 트랙, Big K.R.I.T.은 우승자로 평가받는 이이다. 역동적인 플로우로 일정 음절을 분리해가며 리듬을 생성한 그의 랩 스킬은 가장 귀에 뛰었다.

Benny The Butcher
"Crown for Kings"

Black Thought는 분명 역사상 가장 위대한 MC이다. "Crown for Kings"의 벌스는 그에 대한 좋은 예시에 해당한다. Benny The Butcher의 벌스를 완전히 잊게 만들 정도로 강렬한 그의 피쳐링은 마치 불도저를 연상케 한다. 2분 간 그가 보여준 활약은 곡을 2019년 최고의 힙합 명곡에 옹립시킨 주요인이었다.

The best guest verse of...
Black Thought

The best guest verse of...
Busta Rhymes

Black Star
"Respiration"

뉴욕의 어두운 현실을 시적으로 조명한 Black Star의 "Respiration"은 뉴욕 언더그라운드 힙합에서 가장 중요한 명곡 중 하나이다. 그리고 Common의 벌스는 화룡점정이었다. 곡의 주제를 백분 이해한 상태로 비트에 뛰어든 그는 서정적인 가사와 완벽한 플로우로 동료들에게 완벽한 결말을 선사했다.

A Tribe Called Quest
"Scenario"

"Scenario"는 세상에 범상치 않은 래퍼 Busta Rhymes의 존재를 알린 역사적인 단체곡이다. 허스 키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광인 마냥 거침없이 랩을 뺐어 낸 그의 존재감은 앞선 래퍼들의 랩을 완전히 말소해버릴 정도로 인상적인 것이었다. 그렇게 역사상 가장 독특한 래퍼와 A Tribe Called Quest의 오랜 협력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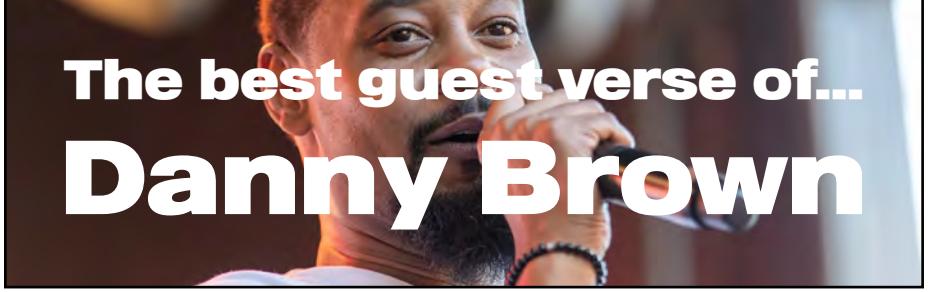
The best guest verse of...
Common

UPES, THE BEST GUEST VERSE OF...?? RAPPER'S BEST FEATURES, THE BEST GUEST

Freddie Gibbs & Madlib

"High"

Danny Brown 같이 인상적인 목소리를 소유한 래퍼가 피쳐링에서 딱히 인상적이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기란 불가능에 수렴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그가 탁월한 랩 퍼포먼스를 보인 곡은 수없이 많았지만, Freddie Gibbs의 "High"에서 선보인 그의 주장기는 씬스틸러에 가까웠다. 특히 곡의 주인과 손님의 음역대가 정반대라는 점에서 말이다.



**The best guest verse of...
Danny Brown**

The best guest verse of...

Denzel Curry

Rick Ross

"Stay Schemin"

Drake는 랩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매번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뿐이다. 심지어 그가 신예일 적, 그의 벌스는 대부분 최고가 되려는 갈망에 가득 차 있었다. Rick Ross의 "Stay Schemin"은 대표적인 예시이다. YMCMB가 주도한 스타일 위 Drake는 Common의 디스에 강하게 응수하며 곡의 스웨거를 최대치로 증대시켰다.



Flying Lotus
"Black Balloons Reprise"

Flying Lotus는 일렉트로니카, 재즈, IDM, 그리고 힙합 아티스트이다. 그와 래퍼들 간의 긴밀한 협력은 근 10년간 지속되었으며, Denzel Curry는 그에게 단연 최고의 벌스를 선사한 이이다. "BLACK BALLOONS | 13LACK 13ALOOONZ"의 연장선상에서 염세주의적인 라임을 수놓는 Denzel의 래핑은 가히 야성적이었다.

The best guest vers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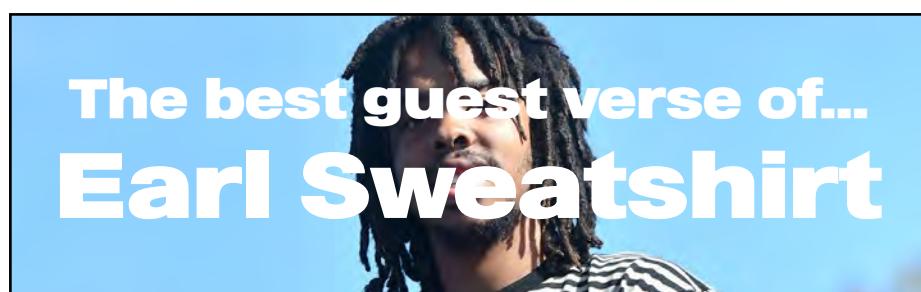
Drake

The best guest verse of...

Earl Sweatshirt

Frank Ocean

"Super Rich Kids"



현 세대의 래퍼 중 가장 광활한 어휘력과 운율 감각을 지닌 Earl Sweatshirt인 만큼, 그가 남긴 양질의 벌스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Super Rich Kids"에서의 퍼포먼스만큼이나 아이코닉한 것은 없을 것이다. Frank Ocean의 가창에 뒤이어 등장한 그의 라임 패턴은 그 수준과 테마 일치 면에서 극찬받아 마땅한 벌스였다.



The best guest verse of... **Eminem**

50 Cent

"Patiently Waiting"

상스러운 표현을 빌어, 전성기의 Eminem이 찢지 못할 래퍼는 전무했다. 절정에 달한 라이밍과 랩 스킬, 그리고 백인으로서 가진 예리한 톤으로 그는 피쳐링마다 최고조의 기량을 뿐내고 다녔다. "Patiently Waiting"의 압도적인 라임 패턴은 그 중에서도 분명 그의 최고 벌스 중 하나로 기억된다.

Statik Selektah

"Carry On"

Statik Selektah는 현재까지도 가장 정석적인 블랙의 이미지에 근접한 비트를 주조하는 몇 안되는 프로듀서이다. 당시 부상하는 신예였던 Joey Bada\$\$는 "Carry On"의 비트에 가장 알맞은 벌스를 남겼으나, Freddie Gibbs는 그 비트에서 도저히 상상해낼 수 없는 플로우를 전개하며 그의 수준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다.

The best guest verse of... **Freddie Gibbs**



The best guest verse of... **Inspectah Deck**

Gang Starr

"Above The Clouds"

그가 골든 에라에 버젓한 솔로 앨범을 발표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Inspectah Deck은 Wu-Tang 내부와 외부를 막론하고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래퍼였다. 들어가는 피쳐링마다 정석의 극한에 가까운 형태로 못 래퍼들을 학살한 그는 특히 Gang Starr의 "Above the Clouds"에서 비트를 완전히 그의 것으로 만들었다.

Benny The Butcher

"Johnny P's Caddy"

근 몇 년 간 J. Cole은 피쳐링 단위로 최고의 래퍼였다. 실질적 기량에 비해 다소 아쉬웠던 앨범 내 퍼포먼스와 대조되게, 그의 게스트 벌스들은 하나 하나가 역사에 남을 정도의 것들이었다. 특히 "Johnny P's Caddy"에서 그가 구현한 타격감과 영리한 편치라인들은 역사상 최고의 피쳐링 벌스 중 하나로 기록되기 충분한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

The best guest verse of... **J. Cole**

UPES, THE BEST GUEST VERSE OF...?? RAPPER'S BEST FEATURES, THE BEST GUEST

Mike Dimes
"HOME (Remix)"

J.I.D는 분명 현 시점에서 가장 재능 있는 래퍼이다. 탄력적인 톤과 속도를 강조하는 가공할 랩 스킬로 모든 곡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내는 그는 객원으로서도 어김없이 곡의 원래 주인들에게 무례를 범한다. 특히 "HOME (Remix)"에서 J.I.D는 Mike Dimes의 벌스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며 곡을 자신의 싱글 라인업에 전시했다.



Meek Mill
"What's Free"

JAY-Z는 시대에 상관없이 언제나 최정상에 군림하며 실력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지워냈다. 그가 <4:44>를 발매한 후 임시 활동 중단 상태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후대의 래퍼들에게 원숙함이란 것이 무엇인지 몸소 증명했다. Biggie의 곡을 오마주한 "What's Free"에서 그는 친우의 유지를 이어받으며 압도적인 랩 스킬의 위엄을 보여주었다.

Denzel Curry
"Zenith"

Joey Bada\$\$는 90년대 힙합의 적법한 후계자로서 언제나 봄뱁 비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지만, 정작 그의 벌스 중 최고로 평가받는 것은 그의 주장기가 아닌 현대적인 비트 위에서 전개한 것이었다. 천부적으로 허스키한 톤으로 Denzel Curry 이상의 플로우를 소화한 Joey는 신예의 티를 천천히 벗어가고 있었다.



Tyler, The Creator
"SMUCKERS"

Kanye West는 순수히 래퍼로서 오랜 세월 저평가 당해왔다. 그가 타 아티스트의 곡에 난입해 마이크를 강탈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SMUCKERS"는 그의 실력을 입증할 좋은 증거이다. 양옆에 Tyler, The Creator와 Lil Wayne을 두고도 가장 강렬한 랩 퍼포먼스를 소화한 그는 <Yeezus>의 메시지 기조를 연장했다.

INTERVIEW WITH GO6 BEATZ



w/HOM

45

KHL

INTRO

간단한 자기소개

45 : 안녕하세요. Haus Of Matters 매거진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45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G06 Beatz (이하 G)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G06 Beatz라고 하고 합니다. 함께 일한 아티스트는 21 Savage, NBA Youngboy, Trippie Redd, Kodak Black, Rylo rodriguez 등 주로 해외 아티스트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45: 본격적인 인터뷰로 넘어가기 전에 G06 Beatz님께서 평소에 들으시는 장르나 아티스트를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G : 저는 정말 다양하게 듣는 편이에요. 90년대 노래도 많이 듣고, 최근에는 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21 Savage을 무척 좋게 들었습니다. (웃음) 얼마 전에 발매된 <american dream> 수록 곡인 "all of me"를 가장 즐겨 들은 것 같네요. 알앤비/소울 같은 경우에는 Tone Stith나 Brent Faiyaz 같은 아티스트의 음악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SECTION 1: G06 Beatz의 롤 모델

45 : 최근작에 참여하신 21 Savage나 알앤비/소울 아티스트를 언급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G06 Beatz님에게 귀감이 되거나 를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티스트는 누구일까요?

G : 우선 워낙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많다 보니 한 명을 뽑기는 조금 어렵네요. 그래도 굳이 한 명을 고르자면 아무래도 Metro Boomin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Metro Boomin의 <Heroes & Villains>는 너무 좋게 들어서 LP도 소장하고 있어요. <Heroes & Villains>에는 많은 장르들이 혼합되어 있고, Metro Boomin의 색도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앨범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프로듀서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래서 제 작업실에 두고 보면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45 : Waka Flocka Flame 다음으로 Metro Boomin이 씬에 등장하면서 트랩 장르 안에서 많은 게 뒤바뀌었잖아요? 어두운 분위기나 Young Thug, Future 등의 아티스트가 주로 하는 애틀랜타 위주의 트랩 사운드가 최초로 구성이 되었죠. 특히 21 Savage와의 합작 앨범 <SAVAGE MODE II>에서 '챔드 앤 스크류드'라는 휴스턴의 대표 올드스쿨 힙합 장르를 재해석해서 선보였는데, 현대적인 힙합과 올드스쿨 힙합을 적절하게 잘 녹여내었죠. 이렇게 Metro Boomin은 다방면적으로 힙합을 이해함과 동시에 양질의 비트를 만들기에 각광받는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G : 말씀해주신 부분에 되게 공감하고, 또 Metro Boomin이 MPC를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힙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보여 멋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전의 사운드를 현대에 잘 맞게 차용해서 제가 추구하는 음악적 방향이랑 되게 잘 맞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Metro Boomin에게는 닮고 싶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동경하는 편입니다.

45 : 를 모델 중 하나로 Metro Boomin을 언급해주셨네요. 혹시 또 다른 아티스트도 있을까요?

G : 요즘 BENNY X, ATL Jacob, Wheezy 등 잘 나가는 프로듀서들이 많잖아요? 그런 프로듀서들을 보면서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무척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 그 분들처럼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갖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프로듀서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시도를 하는지, 어떤 사운드를 사용하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SECTION 2: 해외 아티스트와 작업할 수 있었던 비결, G06 Beatz만의 특징과 장점

45 : 영감을 얻으시는 아티스트로 Metro Boomin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듀서를 언급해주셨고, 그들이 어떠한 사운드 운영을 하는지 연구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다른 프로듀서와 달리 국내를 넘어 해외 아티스트들에게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또, G06 Beatz님만의 특징이나 장점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 : 아무래도 작업 방식이 한국과 다르다 보니 많이들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해외 아티스트의 비트 셀렉션은 사다리를 많이 타요. 한국은 보통 아티스트들과 직접 콘택트를 해서 곡이 발매되는 편인데, 미국은 워낙 래퍼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와 직접 콘택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매니저나 A&R을 통해서 비트를 전달하기도 해요. 제 비트를 사용한 아티스트는 아마 21 Savage를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21 Savage나 Rylo Rodriguez 같은 아티스트는 본인의 프로듀서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G : 물론 Metro Boomin의 London On Da Track 같은 뮤직이 큰 프로듀서는 알겠지만, 세세하게 참여한 프로듀서는 잘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상대적으로 해외 아티스트와 콘택트가 많이 이루어졌던 건, 음악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과 커넥션을 쌓는 네트워킹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 프로듀싱의 특징과 장점 같은 경우는 정말 별 게 없어요. 저는 약간 빈티지한 사운드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보통 샘플을 생각하시면, Kanye West의 침핑크 같은 올드 소울 샘플을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저는 주로 알앤비/소울 넘버를 샘플로 많이 사용해서 사운드를 보다 알앤비/소울스럽게 바꾸거나, 요즘 스타일들을 겨냥해서 샘플을 멜로디하게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음악 안에는 장르가 많은데, 다양한 음악을 만드는 데 난이도는 천차만별이죠. 저는 보통 만들기 어려운 쪽을 파고 드는 편이에요. 그런 다음 만들기 쉬운 장르의 시장에 들어가 사람들이 더 제 음악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쉬운 것만 만들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으니 제가 눈에 잘 띄지 않겠죠. 그래서 만들기는 조금 어렵지만, 가능성성이 보이는 음악을 만드는데 시간을 더욱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제 프로듀싱의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45 : 최근 발매된 21 Savage의 신보의 수록곡 <american dream>의 "letter to my brudda" 나, Trippie Redd의 "1716" 같은 경우에는 알앤비/소울 넘버를 샘플로 사용한 장점이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샘플 안에서 멜로디를 활용하는 역량이 무척 뛰어나신 것 같아요.

G : 감사합니다. 아마 제 곡을 들어보시면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보일 것도 같아요. 하지만 정작 어려운 부분은 따로 있어요. 아무래도 샘플을 활용하다보니 녹음 후 발매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Latto나 Moneybagg Yo, Key Glock과도 작업했었는데 아직 미공개로 남아있습니다.

SECTION 3: 해외 아티스트와의 콘택트 과정

45 : 정상적으로 발매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귀에 GOG Beatz님께서 만드신 음악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전 질문에서 잠시 언급해 주셨던 해외 아티스트와의 콘택트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 : 해외 아티스트와 콘택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에게 DM을 보내거나, 본토에서 직접 만나기 혹은 아티스트의 주변 사람들과 먼저 친해져서 건너건너 소개를 받는 것 등이요. 하지만 아마 아티스트에게는 DM이 위낙 많이 올텐데, 제가 보낸 DM을 과연 볼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전략은 그 아티스트와 작업한 프로듀서에게 먼저 제 작업물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G: 이제 비트를 작업하려면 먼저 샘플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먼저 멜로디를 대충 스케치해서 프로듀서들에게 보내면, 프로듀서들이 좀 더 쉽게 비트를 만들 수 있고 아티스트에게도 전달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 콘택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제가 스케치한 멜로디는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들에게도 보낼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곡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아티스트에게 DM으로 보내기도 해요. 그럼 아티스트가 '아, 이 사람이 내 음악 중에서 이걸 프로듀싱 했네?'를 보고 답장을 해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핸드폰 번호도 받아요. 이 과정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후에도 아티스트와 쉽게 콘택트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는 거죠. Rylo Rodriguez나 Jackboy 등 이런 식으로 연락처를 받은 아티스트가 몇몇 있어요. 하지만 Trippie Redd나 Kodak Black이나 21 Savage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핸드폰 번호를 받기는 어려웠죠. 그래도 엔지니어나 프로듀서 같은 주변 사람들의 번호는 주고 받으면서 저만의 네트워크를 생성했던 것 같아요.

45 : 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예상했던 부분과는 많이 다르네요. 한국도 '인맥 힙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토도 인맥 힙합과 거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G : 인맥이 엄청 중요하죠. 솔직히 미국이 말씀하신 '인맥 힙합'이 더 심한 것 같기도 해요. (웃음) 만약 힙합 씬 프로듀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에 가서 직접 발로 뛰는 게 제일 효과적이긴 해요. 제가 해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놓친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작업을 하면서 '우리 스튜디오에 와서 같이 작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많이 줬었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만약 제가 미국에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성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다른 점 중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크레딧에 따라 받는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똑같아도 플래티넘을 맴다거나, 빌보드에 이름을 올렸다거나 하는 성취에 따라 대우가 확연하게 달라져요. 왜냐하면 어떠한 성취가 있는 사람들이랑 일해야 본인에게 떨어지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기도 하죠.

45 : 실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빌보드 차트나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프로듀서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확실히 있겠네요.

SECTION 4: 프로듀서를 향한 국내/해외 아티스트들의 요구사항의 차이점

SECTION 6: 뒤바뀌는 트렌드와 새로운 가능성

45 : 해외 아티스트와 콘택트하게 된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국내, 해외 아티스트들은 프로듀서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 : 요구하는 점은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한국 아티스트와 작업을 많이 한 편은 아니지만, 한국에는 '독점'이라는 개념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익스클루시브라고 하죠? 한 아티스트와 작업을 하면 온전히 그 사람만을 위한 비트를 만드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를 그냥 막 뿌리거든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고. (웃음)

그리고 한국에서는 샘플링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샘플 클리어하는 데만 천 만원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샘플 활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시장 차이가 있죠. 프로듀서들의 아이디어를 좀 더 뽐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또, 한국은 멜로디의 유사성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여려모로 제약이 많기는 해요.

45 :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국내 아티스트들의 요구사항이 좀 더 세부적인 것 같네요.

G : 맞아요. 믹스도 외국 아티스트는 보통 통 MP3 파일로 끝을 내요. 어떻게 보면 믹스는 외국이 좀 더 대충하는 것 같아요. 물론 21 Savage나 Travis Scott 같은 유명 아티스트들은 스템 파일을 가져가기도 하는데, 보통 대부분은 귀찮아서 통 MP3로 작업을 하죠. 하지만 한국 아티스트는 웬만하면 스템으로 작업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 요구하는 사항이 더 많다고 느껴지기는 하네요.'

SECTION 5: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45 :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요구하는 점과 그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들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G : Kodak Black이 조금 특별했어요. 제가 유튜브에 매일같이 Kodak Black 타입 비트를 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Kodak Black이 네 유튜브에서 타입 비트 하나를 썼다.'고 엔지니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기억이 나요. 타입 비트의 대상이 그 타입 비트를 쓴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21 Savage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 거기서는 제가 멜로디를 만들었었거든요. 그 멜로디를 만든 게 고등학교 1학년 초반 때인데, '21 Savage가 너의 멜로디를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를 6~7개월 전에 듣고 소식이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안 나오나보다 싶었는데, 결국 발매가 돼서 기억에 더 남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렸던 게 21 Savage 밖에 없어서 좀 더 특별했네요.

45 :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는 Kodak Black과 21 Savage를 언급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최근 힙합 소비 플랫폼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전에는 사운드클라우드였다면, 최근에는 유튜브 솟풀이나 틱톡, 릴스 같은 콘텐츠로 소비가 되고 있죠. 위 세 플랫폼을 통해 프로듀서 씬이 좀 더 활발해진 것 같기도 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본토에서 활동하는 프로듀서가 아니면 본토까지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았는데, 다양한 솟풀 콘텐츠를 통해 열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G : 말씀해주신 것처럼 SNS나 솟풀 콘텐츠를 통해서 이전보다 콘택트가 활발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통하기가 좀 더 쉬워졌잖아요? DM 하나만 보내면 작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한 과정들이 상대적으로 단순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솟풀 콘텐츠에서 파생되는 부정적인 점도 있죠. 예를 들어 틱톡 같은 경우에는 챌린지를 통해 돈을 쏠쏠하게 벌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관련된 장르를 시도하는 아티스트의 수가 많아졌죠. 예를 들면 DaBaby도 갑자기 저지 클럽 사운드 음악을 내고 뮤직비디오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마냥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새로운 아티스트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솟풀 콘텐츠에는 그러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45 : 음악 관련된 기사나 채널을 보다 보면 솟풀 콘텐츠가 음악의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내용이 자주 보이는데, 실제로 몸으로도 와닿는 것 같아요. 최근 저지 클럽, 플럭앤비, 뉴재즈와 같은 장르들이 큰 하입을 받으면서 트렌드가 되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장르를 시도하는 아티스트들의 수도 무척 늘은 듯해요.

G : 또 하나의 단점이라면 정작 음악에 집중하지 않고 마케팅 측면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겠죠. 자신의 음악을 더 잘 만들 생각을 해야하는데, 유행을 따르며 바이럴 마케팅을 하며 작업에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SECTION 7: 프로듀서가 갖춰야 할 역량, 그리고 G06 Beatz만의 멜로디 메이킹

45 : 솟풀 콘텐츠에 대한 G06 Beatz님의 의견도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좋은 프로듀서라면 갖춰야 할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G06 Beatz님의 멜로디 메이킹에는 뛰어난 센스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좋은 멜로디를 만드시는 비결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 : 제가 음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급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곡을 만들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편입니다. 멜로디 메이킹에도 별 다른 비결은 없지만, 멜로디를 만들 때 '이 안에서 랩을 할 수 있는가?'는 감안하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멜로디가 너무 많으면 랩을 얹거나 아티스트가 다른 멜로디를 입히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좋은 멜로디가 나올 때까지 이것저것 계속 만들어보는 것 같아요. 물론 프로듀서들마다 각자만의 방식이 있고, 자신에게 맞는 작업 방식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러한 작업 방식이 잘 맞다 보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45 :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멜로디라도 래퍼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독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멜로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실 때 혼자 계속 만들어보시는 걸까요?

G : 네, 맞아요. 하나씩 만들면서 어느 사운드에 어울리나 계속 체크를 하죠. 무작정 만드는 것보다 이 안에 랩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자리가 충분히 있나 신경을 쓰면서 작업합니다.

45 : 그럼 멜로디를 만드실 때 주로 어느 장르에서 영감을 받으실까요?

G : 주로 70년대 소울이나 가스펠 같은 이전 세대의 노래에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저는 연도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10년 뒤에도 똑같은 노래를 내지는 않을 거잖아요? 노래도 시대마다 특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각 장르의 멜로디 특징을 공부하면서, 어떤 식으로 어떠한 악기를 넣어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릴까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45 : 제가 직접 프로듀싱을 해 본 건 아니지만, G06 Beatz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악을 최대한 많이 들어야된다고 생각해요.

G : 맞아요. 특정한 장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듣는 것만 계속 들으시는 분들도 있던데, 억지로라도 새로운 걸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SECTION 8: 앞으로 시도하고 싶은 장르나 관심있는 아티스트

45 : 멜로디 메이킹 관련하여 답변해주셨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시도하고 싶은 장르나 관심 있는 아티스트가 있으실까요?

G : 우선 앞으로 시도하고 싶은 건 저만의 확고한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Metro Boomin하면 다크한 사운드, Wheezy하면 슬라임 스타일의 비트가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악 자체도 결국 하나의 브랜딩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들었을 때 '이건 G06 Beatzs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사운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 목표이자 계속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G : 관심 있게 지켜보는 아티스트는 알앤비/소울 쪽에서는 Brent Faiyaz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딱 하고 있거든요. 최근 작품을 들어보면 샘플이나 빈티지한 질감 등 이전의 소리들을 많이 차용했잖아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Brent Faiyaz가 잘 맞는 것 같아서 작업을 꼭 한 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Drake 라든지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들은 수없이 많죠.



45 :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한 프로듀서를 떠올려보았을 때 자신만의 확고한 무언가를 대부분 갖춘 것 같아요. 남들과 차별화되는 프로듀서가 결국 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더라고요.

G : 그렇죠.

SECTION 9: 21 Savage 앨범 참여와 "letter to my brudda"의 높은 순위 차트의 소감

45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인데요. 21 Savage의 앨범이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죠. 21 Savage의 신보 <american dream> 속 G06Beatz님이 작업 하신 트랙 "letter to my brudda" 또한 높은 성적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에피소드에 대해 짧막한 설명과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G : 제 곡은 현재 (1/24일 기준) 글로벌 200에서 9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짧막한 소감이라고 하면 제가 정확히 1년 전에 노트에다가 빼곡히 썼거든요. 나는 무조건 빌보드 200 차트 1등을 할 거다. HOT 100을 무조건 갈 거다. 진짜 저주처럼 노트에다가 빽빽이 썼어요. 근데 진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간절했고 그만큼 또 열심히 일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씩 달성되면서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제 목표에 있어서 첫 스텝을 밟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 같아서 좋습니다.

45 : 네 이번에 21 Savage 신보에 한국인 프로듀서가 들어간다 이런 걸로 힙합 리스너들에게 있어서 많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저도 그거 보고 많이 놀란 거 같아요. 특히 21 Savage 같은 경우는 현 힙합씬에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래퍼라 더 대단하셨고요.

꼭 G06beatz님의 팬이 아니더라도 힙합씬의 한 팬으로서 많은 분들이 단 응원의 댓글들이 여러개 있던데 이런 댓글을 보시고 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G : 프로듀서를 하고 싶은데 이게 돈벌이가 될까 이것부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
고요. 한국 분들은 그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믿고 열심히 하시면 돈
도 명예도 따라오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이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제 나이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
라 그래도 해외 아티스트들이랑 작업하는 거 같이 돈보다는 더 가치 있는 것들
을 쫓아가다 보니까 가능하게 된 거 같아요.

**45: 인스타 댓글이나 커뮤니티에서 힙합씬의 팬으로서 박민건님을 응원해 주
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G :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소감해도 될까요? 21 Savage의 앨범
이 빌보드 1위 갈 거라는 거 라는 확정 뉴스가 나왔었는데, 당시에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거든요. 기억에 남는 게 여자친구가 저만큼 기뻐해 줬던 거예요. 진심
으로 저를 응원해 줘서 여자친구한테 많이 고마웠어요.

인터뷰 소감

**45: 소중한 사람이 자신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것에 대한 기쁨과 더불어 프로
듀서 지망생들에게도 응원의 한 마디를 해주시면서 오늘의 인터뷰가 모두 마
무리되었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
리겠습니다.**

G : 우선 인터뷰어님께서 분위기를 잘 풀어주셔서 편하게 인터뷰에 응할 수 있
었어요.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인터뷰를 읽으시는 모
든 분들이 자신을 믿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대체 어
떻게 하냐?, 이건 절대 안 돼'와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 걸 신경 쓸 필요 없이 각자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니 본인
을 믿고 열심히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45 :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무척 감사드
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99 Heartake Sabileye - Lord Forgive Me

kokyuu - lily chou chou

Eric Dolphy - Out There

George Clanton - Ooh Rap I Ya

Key-Kool & Rhettmatic - Kozmonautz

Larry Saunders - Stranger



《All About

Editors' Picks》

Ç ÇåÇå Ç ÇÇÇëÇiÇi ÇdÇÑÇåÇiÇæÇiÇi V ÇoÇåÇÉÇåÇi

by Editor

SongChico

BlackMatter

Indie Aisle

앞날

공ZA

999 Heartake Sabiley
<Lord Forgive Me>



kokyuu
<lily chou chou>



TRACKS

1. You're Listening To... / 2. Dake / 3. Throught the Wooooooooo! / 4. I'm Not Seeing Enough Movement! / 5. 100,000 Beers Deep at a Theatre Kid Party Rapping 12 Stout Street on the Front Porch / 6. Television Rules the Nation / 7. Babytron on a Yeat Beat / 8. Family Guys / 9. God Is Good / 10. Phoebe Bridgers Come to My Grad Party! / 11. Masterirukaplays / 12. Closer / 13. Before the Dawn / 14. Like... / 15. What Would Jane Do? / 16. Go Home / 17. Kentucky Special / 18. Pntry Vodka / 19. Brian Griffin Off the Dmt Cart / 20. Lamb of God / 21. A Compromise / 22. Water Ice Salt! / 23. One for My girls / 24. Back Like I Never Left! / 25. For the Ones Who Raised Me, the Ones Who Saved Me... Forever Grateful / 26. We Make It to Heaven / 27. Lord Forgive Me!

by Editor SongChico

TRACKS

1. Arabesque / 2. Ai no Jikken / 3. Erotic / 4. Hikousen / 5. Kaifukusuru Kizu / 6. Houwa / 7. Tobenai Tsubasa / 8. Kyumei-Kyuukyo na Ishi- / 9. Gl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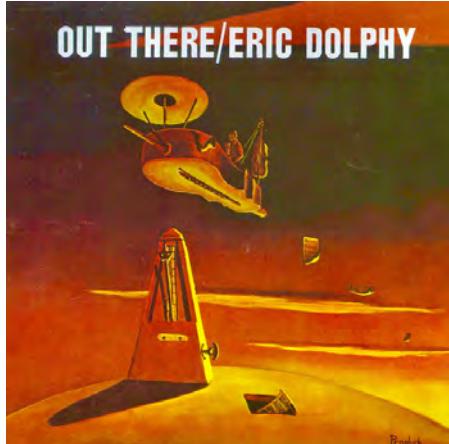
by Editor BlackMatter

Jane Remover(Leroy)의 손에서 시작된 다리아코어(Dariacore)와 훨씬 그 전부터 존재했던 매쉬업/매쉬코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샘플의 범위를 넓혀갔다. 특히나 Leroy는 작년 발매한 <Grave Robbing>을 통해 다수의 KPOP 음악을 샘플로 활용하며 다리아코어를 한단계 더 진화시켰다. 올해 1월에 발매된 999 Heartake Sabiley의 <Lord Forgive Me>는 트랩과 드릴장르의 음악들을 샘플링하여 만든 매쉬업, 다리아코어 앨범이다. Drake, Kendrick Lamar, Nicki Minaj부터 Baby Keem, Ice Spice까지 까지 힙합 장르의 팬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들의 음악이 마치 다른 세계의 음악처럼 들리게 될 것이다. 전자음악과 힙합샘플의 만남으로 탄생한 본작은 보기 드물던 형태의 작품이자 다양한 장르의 팬들이 흥미를 갖고 들을 수 있는 앨범이다

영화 <릴리 슈슈의 모든 것>에서 감독 이와이 순지는 에테르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영화 속 4명의 등장인물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인 가상의 아티스트 릴리 슈슈는, 이 에테르를 음악속에 담아내는 인물이다. 감정의 촉매라고 설명되지만 그 어떤 명확한 정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에테르를, 등장인물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며 또 활용해낸다. 언어로 재현하기에는 꽤나 추상적인 이 개념을 <Kokyuu>는 훌륭하게 직조하고 청자에게 전달해준다. 릴리 슈슈로 분한 salyu의 부드러운 보컬로 휘몰아치는 우울하고 감정적인 트립합과 드림팝은 주인공들이 릴리 슈슈를 애정하는 이유를 넘어 우리가 음악을 듣는 본질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음악이 가진 감정의 촉매라는 특성을 이용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켜 준다. 드뷔시의 "Arabesque"에서 제목을 따온 1번 트랙과 묘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Erotic". 영화의 우울하고 암울하며 무기력해지는 분위기를 가장 잘 담아내는 마지막 트랙 "Glide"까지. 9트랙 동안 이어지는 독특한 송메이킹과 특유의 감성은 이 앨범을 영화 속 아티스트의 음악을 넘어 별개의 음악 작품으로써의 가치도 더해준다. 당신도 이 앨범에서 에테르의 존재를, 그리고 인간이 음악을 소비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낼 수 있기를.



Eric Dolphy
<Out There>



George Clanton
<Ooh Rap I Ya>



TRACKS

1. Out There / 2. Serene / 3. The Baron / 4. Eclipse / 5. 17 West
/ 6. Sketch of Melba / 7. Feathers

by Editor Indie Aisle

TRACKS

1. Everything I Want / 2. Justify Your Life / 3. Punching Down /
4. I Been Young / 5. You Hold the Key and I Found It / 6. Vapor
King / SubReal / 7. F.U.M.L. / 8. Ooh Rap I Ya / 9. For You, I Will

by Editor 앞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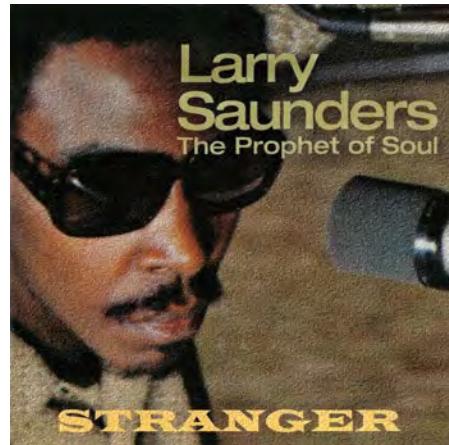
정신없는 뉴욕의 길거리를 다각도로 시각화하듯이— 전위적으로 스윙하는 재즈 아티스트 집단의 총체를 우리는 오늘날 '프리 재즈 분파'라 부르고 있다. Ornette Coleman, John Coltrane 등의 전설적인 이름들이 지금은 이 파별의 수장으로서 사람들의 입가에 오르내린다. 헌데 유달리 에릭 돌피(Eric Dolphy)라는 이름만큼은 이들의 수사 속에서 그 모습을 찾기가 힘들다. 요컨대 전위적 알토 색소폰 연주자의 분수령을 개막한, 위대한 연주가일지라도 유명세의 변덕 성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Out There>는 돌피와 Coleman이 프리 재즈의 포문을 열어젖힌 바로 다음 해에 나왔다. 말인즉슨 개척가의 실험적이고 모험가 스런 정신보단 스타일의 무르익음을 느낄 수 있는 음반이란 뜻이다. 명징하고 정확한 프레이징의 Coltrane과 암호스러운 스윙의 Coleman과는 또 다른, 심미 성과 미학이 담긴 돌피의 연주를 듣자면 자연히 '이게 아방가르드 식 스윙이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스윙이야말로 모든 재즈 팬이 '저 변경으로부터' 찾아온, 단 하나의 원숙한 연주였으리라.

베이퍼웨이브, 칠웨이브, 인터넷 문화, 광범위한 사운드의 팔레트를 가공한 조지 클랜튼(George Clanton)의 <Ooh Rap I Ya>는 아련한 향수를 제공한다. 몽환적인 80, 90년대의 무대 위에서 퓨전된 독특한 멜로디의 마법은 청자로 하여금 주황색의 노을빛 물감에 풍덩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더군다나 곡 내에 노이즈 및 레이어가 가득 낀 보컬은 연주들과 맞물리며 더욱 효과적인 최면을 유도 할 뿐이다. 칠웨이브, 사이키델릭, 트립 합과 슈게이징까지 과거와 현대의 장르를 오고가는 조지 클랜튼의 프로덕션 아래에서 새로운 형체를 구성하니, 구체적인 장르를 짚을 수 없을 정도로 몽환적이다. 결국에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바라보는 성장에 관한 스토리, 겹겹이 쌓인 소리의 파편들, 끈적끈적한 멜로디들은 천천히 융합하며 멍하니 타들어 가는 주황색 잉걸불을 보는 듯하다. 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힘들지만, <Ooh Rap I Ya>는 과거와 현재를 효과적으로 조합해 떠나는 타임캡슐과도 같은 작품이 아닐까.

Key-Kool & Rhettmatic
<Kozmonautz>



Larry Saunders
<Stranger>



TRACKS

1. The Big Bang: Kozmonautz / 2. Wreck N' Destroy (Non-Believers Get Stomped) / 3. Brain Swell / 4. Can U Hear It? / 5. Afta Hours 5/19/95 / 6. Be A Hoodlum / 7. Head Trip / 8. Visionaries (Stop Actin' Scary) / 9. Lyrical MD's / 10. E=MC5 (Bust Da Scientifical) / 11. Sexually Repressed / 12. Just Into My Music / 13. Kik Yo Kan / 14. Existentialism / 15. Shape Shiftaz / 16. Reconcentrated

by Editor 공ZA

TRACKS

1. Fly Away Love Bird / 2. Three Strikes On Me / 3. All My Friends Call Me A Fool / 4. This Is My Prayer / 5. Stranger / 6. Story Of My Love / 7. Darling I Love You / 8. Love, I Haven't Found You Yet / 9. This World (Is A Ball Of Confusion) / 10. You Beat Me Baby

by Editor 공ZA

일본계 미국인 MC 키-쿨(Key Kool)과 필리핀계 미국인 DJ Rhettmatic. 그들이 1995년에 만났다.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한 그들의 첫 앨범 <Kozmonautz>는 우리가 흔히 '서부 랩'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지 펑크 사운드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오히려 동부의 그것과 가까운 불법 프로덕션을 기반으로 날카로운 톤의 키-쿨의 익살스러운 래핑이 더해진다. 오직 랩 하나로만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언더그라운드 힙합 앨범 속 감상의 재미를 더하는 건 건조한 사운드 속에서도 군데군데 묻어나오는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무드. 또한, "Be A Hoodlum", "Head Trip" 같은 트랙에서 보여주는 성적이면서도 재치가 넘치는 일상의 스토리텔링은 자칫 뻔해질 수 있는 앨범의 흐름을 환기한다. 얼음 같은 영혼의 소유자 Ras Kass의 살벌한 래핑과 후에 이 듀오가 수년간 몸 담게 되는 5인조 랩 그룹 'Visionaries'의 전신이 되는 트랙 "Visionaries"도 주목할만하다.

소울의 예언자가 보내는 소울 뷔페로의 초대장. <Stranger>에서 래리 사운더스(Larry Saunders)가 선보이는 관, 현, 타악기의 조화는 그의 소울풀한 보컬과 하나님을 통해 각기 다른 먹음직스러운 소울 넘버라는 열매를 맺는다. 겹겹이 쌓이는 EP, 신시사이저, 오르간 사운드가 형성하는 노스탤지아. 때로는 우수에 찬 모습으로, 때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경쾌한 힘을 보여주는 관악기. 독특한 질감을 통해 감초 역할을 하는 퍼커션. 하나의 악기와도 같은 역할로, 래리 사운더스의 매끄러우면서도 혈기왕성한 멜로디를 보조하는 백 보컬. 자칫 넘쳐흐를 수 있는 이 모든 요소를 소울의 예언자가 자신의 보컬 아래 진두지휘한다. 애절한 발라드에서는 그는 달콤한 목소리로 사랑을 부드럽게 속삭인다. 생동감 있는 힙크에서는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을 예찬하며 힘 있게 외친다. 래리 사운더스가 이끄는 흐름을 뒤쫓아가 보자. 그가 남긴 소울의 흔적을 손아귀에 움켜쥐며.



Credit

Recently Released

공ZA
45
앞날

Full-Length Review

공ZA
45
SongChico
Indie Aisle

Classic Album Review

Indie Aisle

Featured

45
SongChico
온암

Interview

45
with G06Beatz

Editors' Picks

SongChico
BlackMatter
Indie Aisle
앞날
공ZA



Design

ikidkekwi



ALL IMAGE RIGHTS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
매거진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해당 소유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khlofficial@gmail.com
@hausofmatters